

| 경사노위 출범 의미와 주체들의 역할 |

상호신뢰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 성과보다 신뢰기반 확장할 수 있게
정부·여당이 노력해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지난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재개 제안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당초 우리가 제시한 시간표보다 늦춰진 것에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새로이 마련된 대화의 장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실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새 집을 짓기까지 애쓴 모든 경제사회주체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은 한국 사회 전환과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 플랫폼이 구축되었음을 뜻합니다. 노동·사회정책을 둘러싼 노사정 간 갈등의 완충지대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노사정주체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경제사회질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상호공감대와 협의의 공간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출범이 촛불혁명과 조기대선에서 드러난 양극화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새로운 법과 제도, 질서와 관행으로 현실화해나갈 전초기지가 꾸려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기구의 이름을 바꾸어 출범을 공식화하는 것만으로 경사노위에 주어진 기대의 실현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여주체들이 지난 사회적 대화의 실패 경험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과 신뢰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때라야 사회적 대화는 비로소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부, 그리고 여당에 바라는 책임과 역할이 더욱 클 수밖에 없음을 강조 드립니다. 과거 정부 하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과 무용론이 여전히 노동 현장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추진되었던 노동정책들마저 경제상황을 이유로 최근 잇달아 일방적으로 수정됨으로써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여당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조성된 사회적 대화의 순항을 위해서는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균형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와 함께 논의체 구성과 의제설정에도 있어서도 단기적 성과를 지향하기보다 신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보다 성숙한 운영이 요구됩니다.

한국노총 역시 새로운 주체로 참여한 비정규, 청년, 여성노동자 대표위원들과의 공조와 연대를 통해 2천만 노동자의 이해를 올바르게 대변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조성된 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환경 헤쳐 나갈 대타협 기반 조성되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지난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노사정의 1년에 가까운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새 옷을 입고 노사정 모두 우리 경제·사회의 난제들을 풀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정 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사회적 대화의 외연도 넓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의미는 노사정을 비롯한 경제사회 주체들이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출발은 늦었지만 어렵게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청년일자리, 양극화, 연금개혁 등 경제사회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의 매듭을 풀기 위한 첫 걸음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계속 지적되는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뀌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네덜란드 역시 오랜 대화를 통한 노사정의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대타협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노사정도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대타협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당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에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화,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

고 대립과 반목을 지속한다면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활력이 불어넣어져야 합니다. 기업들은 경제상황과 제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들 또한 일할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노동시장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이지만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대타협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장이 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당면한 현안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참여주체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참여 폭만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여주체 모두가 '더 성숙하고,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대화해 나간다면 많은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상의도 진지하게 해법을 고민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사노위는 실질적 의결기구, 책임 있는 자세로 작은 성과부터 쌓아나가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함께, 더 멀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한 지 20년이 되는 해에, 勞·使·政 합의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더 많은 경제사회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올해 초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진정성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경사노위라는 성과를 만들어 주신 문성현 위원장님과 勞·使 대표자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및 노동시간 단축 문제, 노동기본권 확대 등 고용노동현안은 물론이고,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은 모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의 중의(衆意)를 모으는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바로 경사노위가 있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춘 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작은 것부터 성과를 만들고,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도 과거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 勞·使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논의과정을 지원하고, 합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 노사정은, 경사노위 출범 이전인 지난 여름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치열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취약계층 소득보장과 관련한 첫 합의가 있었고, 노후소득 보장과 4차 산업혁명 등 국가의 장기 비전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 중입니다.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논의 또한, 쉽지는 않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간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마다 입장과 요구는 다르겠지만,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은 여러 사정으로 현재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勞·使 및 공익위원을 비롯한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께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끈질기게 토론하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일터와 삶에서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목소리의 창구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만 합니다.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은 여전히 소수의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어 부와 소득을 비롯한 불평등의 늪으로부터 한국사회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경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기존의 시스템 하에선 노동의 기본권은 후순위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삶은 매순간이 위기입니다. 특히나 산업구조와 맞물려 노동의 모습 또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합니다. 허나 노동의 모습은 변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일터의 권리와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며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노동시장 내에서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가 충분히 포용하는 것으로부터 진정 노동존중사회가 실현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중차대하게 안고 있는 양극화 해소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얼마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새롭게 개편하여 출범하였습니다. 평생고용과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면 20대부터 전 생을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 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와 일터 내에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여성,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차별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 계층이 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계도 중견, 중소, 소상공인까지 위원으로 확장되어 기존 대기업 중심의 이해대변 체제를 넘는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98년도에 만들어진 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닌 그간에 우리 사회가 조명하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포용하며 경제주체로 인정하는 실질적 개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위원회 위원의 확장만으로 모든 숙제를 풀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의제별·업종별·계층별위원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이 도출되기 위한 기나긴 대화의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성숙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각 계층이 이해관계를 좁히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갈등의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에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 끈질기게 토론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회적 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조율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의 틀로 확대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또 그동안 자신목소리를 내는 데서 소외되어왔던 여성노동자를 대변해서 사회적 대화의 한 주체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그 운동장의 경사가 더욱 가파르게 기울어져 운동장 아래쪽의 사람들은 붙잡을 손잡이도 없이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의 경사가 급해지면 결국은 위쪽 아래쪽 할 것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떨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는 공통의 인식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운동장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가 고질적인 성차별에서 비롯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70년대의 선배 여성노동자들이 오빠와 남동생 공부시키려고 공장을 다니며 희생했다면 지금의 여성들은 딱 학교 갈 때까지만 덜 차별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 사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벌어지는 채용 성차별로 청년들의 구직난에 더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나마 공정하리라 믿었던 금융권에서 서류에서부터 차별당해 4:1로 시작부터 차별받는 현실은 ‘남자가 스펙이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뱉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비정규직이고 작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습니다. 또 여성들이 주로 가는 돌봄이나 서비스 직종의 임금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이고 감정노동을 수반함에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주로 부과되는 현실에서 승진에서도 밀리고 직장에서도 밀리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15년째 OECD 최고 격차를 기록한 성별임금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나타난 것 말고도 이러한 성차별과 압박은 지위고하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있었고 이를 고발하자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장판사인 여성도 일과 가정의 짐을 지고 과로사하는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직종에 있으며 노조도 없는 대다수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차별의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수한 여성들이 직장에 나와 일을 하는 것을 가로막아 기업은 인재를 잃게 되고 이 나라의 절반인 여성들이 빈곤해지고 의욕을 잃게 되어 나라 전체의 손해로 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과제를 푸는 일은 여성들의 상황과 바람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도 개선과 인식의 변화, 기업의 문화의 변화가 함께 요구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여성, 비정규

직의 대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회적 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대화하고 합의해서 운동장 아래쪽의 90%도 살만한 사회로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나 갔으면 합니다. 그 길에 무겁지만 즐겁게 함께 하겠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가교가 되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촛불항쟁이 있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시대 소명으로 부각됐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은 부패한 권력자들이 투옥됐다. 대통령이 앞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도 시작됐다. 불평등 양극화 심화로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부르짖던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동체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기운이 차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만만찮은 벽에 부딪쳐 참여정부 때의 실패한 전철을 되밟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길은 어디에 있는가.

현대사의 질곡을 뚫고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달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답게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발전하려면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본주의는 계급계층 사회다. 사회경제체제의 핵심인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적대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어야 격차사회를 복지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고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다. 밥이 하늘이다. 밥을 나누는 것은 하늘을 공유하는 것이다. 날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만큼 힘겹고 어려운 과제다. 나만 옳다는 선민의식과 낡은 진영 논리에 갇혀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다. 사회적 대화가 필수인 건 밥을 나누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새롭게 합류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무엇보다 노동이 배제당하고 홀대받은 시기에 무노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아온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처지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비롯해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가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대 다수 국민인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전태일의 풀빵정신을 시금석으로 삼아 최소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몫을 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진검승부다.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계기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새롭게 시작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로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목적도 산업평화에서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계층별 갈등은 대화를 통해 풀면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99.9%는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90.2%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국가 경제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회 개혁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고, 중소기업들 스스로도 과거보다 넓은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사회 문제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관련된 의제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병의 핵심을 짚어서 치료를 하면 낫지만, 증상에 따른 처방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당면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심으로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뛰어넘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일자리 창출은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모든 경제주체가 조금씩 나누어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노동 존중과 시장 존중이 균형을 이루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구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도 지금의 어려움을 혁신의 기회로 삼아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지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낸 합의문도 84건에 이릅니다. 이제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나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대한민국에도 성공한 대타협의 모델을 만들어낼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 시작에 함께 하게 된 책임감을 다시금 무겁게 느낍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 사회 구조 개혁의 계기를 만들어낸 성공한 대화기구로 역사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합리적 해결책 찾아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 없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적 기대가 큰 새로운 국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은 중견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주력해왔는데,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주체로 참여하게 된 만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법정 단체로서 행보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책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알린 첫 본회의에서 위촉장을 받고 나서 마음이 참 바빠졌습니다. 고용노동정책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이라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의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에 위촉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들은 산적해 있지만, 세계 경기 둔화, 조선·자동차 등 국내 대표 산업의 위기, 내수부진, 고용 악화 등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개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이 창출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양극화의 간극도 조금씩 좁혀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작은 기업도 아니고, 큰 기업도 아닙니다. 성장하는 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성장해 나가려면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기업이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업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지지가 그 여건의 첫 단추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 걸음 양보하는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면 반기업 정서를 불식할 방안도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도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각기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상이한 4,400여 개 중견기업들을 대변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참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계 내부에서의 지난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중견기업계가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위촉되고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라 생각합니다. 경사노위에 새로이 합류한 중견기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어린 시선을 늘 염두에 두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노위,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디딤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경제·성장, 민주주의 등 한국 현대사의 3대 정책 노선 중 외교·안보와 민주주의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외교·안보 면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비로소 냉전시대를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참여를 통해 국가의 기틀을 튼튼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크나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경기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루어내면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경제성장의 활로를 찾아야 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과제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실현한 한국 사회의 저력으로 잘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점이 바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기존의 노사정에 소상공인을 비롯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사회경제적 대전환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상공인 산업을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700만 소상공인들은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이 담당하는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신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주요한 경제주체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위원회의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국회 역시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경사노위의 활동이 모든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껏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